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충북지역회의,
'2017년 청소년 통일문화캠프'

당신이 통일주인공

"인생도 멋지게 수선해야죠!"
'재봉의달인' 정혜영씨

통일돋보기

북한 장마당 VS
남한 전통시장

신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전략적 동향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열악한 외교안보 여건 속에서 출범하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실리 성향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드 보복과 압박을 멈추지 않는 강경 성향의 중국 시진핑 정부, 위안부협상 이행을 고집하는 불통 성향의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핵능력 고도화를 질주하는 비타협 성향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해야 한다.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은 상대들이다. 이 중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상대하기 가장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하는 북한의 셈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속셈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넘어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는 것이다. 미국·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대등한 관계를 목표로 '핵보유국 정치'를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달라진 전략적 위상'(핵보유국)에 기초하여 유리한 대외관계 구도를 만들고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를 실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고 각 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과 '화성-12형'을 포함한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더니, 결국 7월 4일에는 우려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한은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통해 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험발사한 사정거리 7,000km 수준(알래스카와 하와이 타격권)의 ICBM으로는 북한의 타격 목표인 미국 본토(10,000~11,000km)에 미치지 못한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의 전략적 능력을 확보한 다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협상의 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 개의 로켓엔진을 하나로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2단에서 3단으로 늘일 경우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는 그리 오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를 교란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시험발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추가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전략적 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필요성도 남아있다.

북한은 게임체인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의 전략적 능력을 확보한 다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협상의 길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능력 완성 이후 미국의 선택은 협상의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인도의 사례를 통해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실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은 현존 핵능력을 인정받는 대신 미래 핵능력과 핵프로그램 포기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현존 핵능력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핵능력 포기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정 가능한 북한의 〈현존 핵능력 인정, 미래 핵능력 동결·포기〉 구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 지난 4일 북한이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_화성-14_ 발사

북한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정치군사적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 쌍안경으로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의 핵보유국 정치는 대남정책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종속구조로 여기고, 미북관계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 사이의 문제이므로 남한은 빠져라"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평화체제 논의에서 우리의 당사자 자격을 배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조치를 거부하는 대신,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했던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우리 정부의 남북체육교류 희망 의사에 대해 "정치가 우선시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체육으로 푼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나친 것"이라는 발언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정치군사적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우리의 양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의 이런 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장마당 VS 남한 전통시장

여행을 가면 꼭 가보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지역 문화나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최근 400여 개에 달하는 시장이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인들의 연령대도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장마당'이 2003년 북한 당국의 정비와 허가를 거치면서 공식 '종합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남북한 전통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종류

남한 대형마트, 도소매상점

북한 장마당 주류

남한

전통시장

자연발생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로 조성된 시장.

상점가 & 대형마트 및 아울렛

일반 상가는 일정 범위 또는 지하도 건축물 점유 토지 내 50개 이상 형성된 도소매 점포

대형마트는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북한

장마당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조성된 시장

'메뚜기 장사' '골목장' 등으로 불리기도 함.

종합시장

2003년부터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이 확대·개편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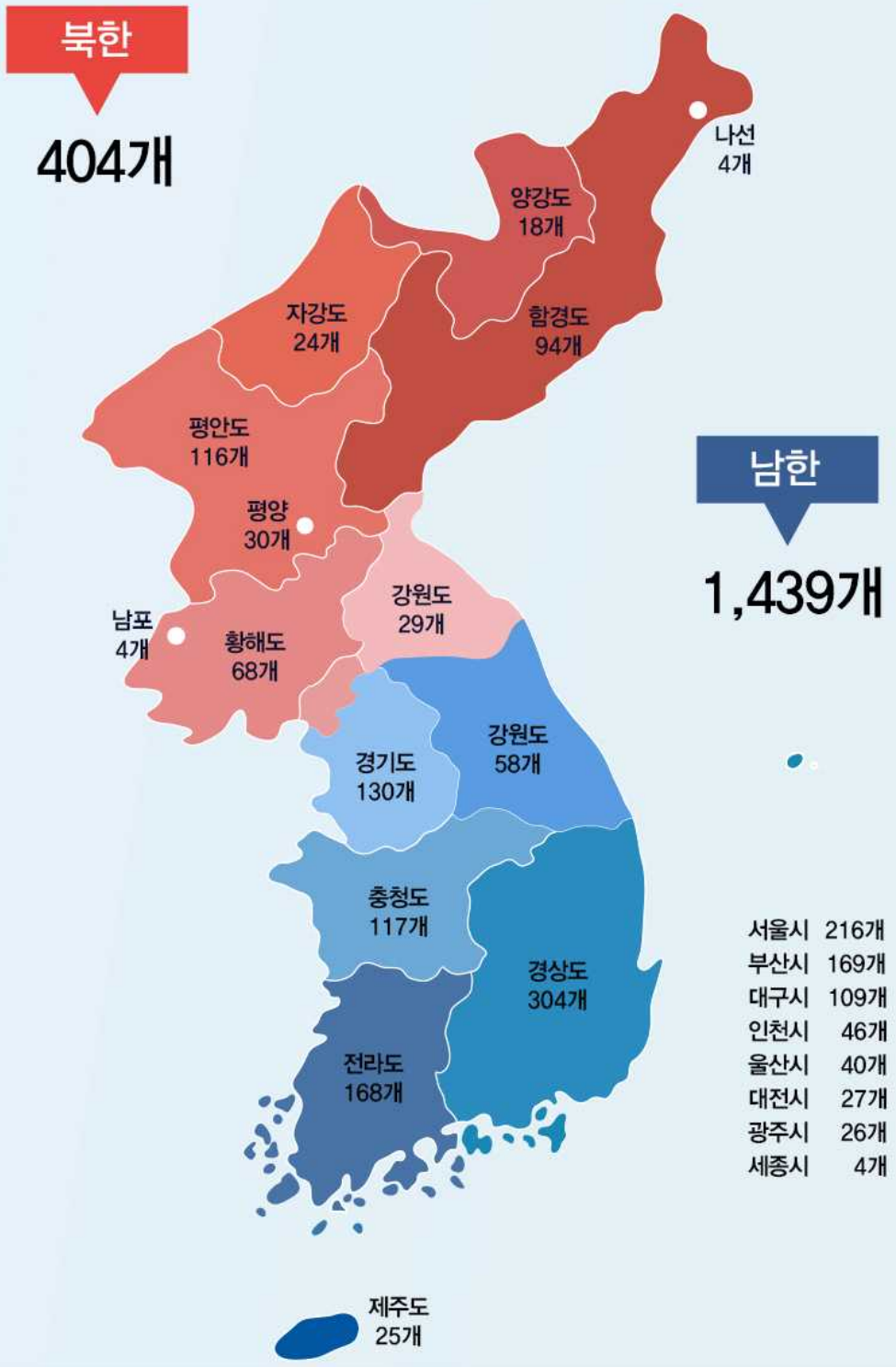
평양 40여 개, 시군별로 1~2개씩 약 300개 조성. 농산물이나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공식 시장.

전통시장 수

남한이 **북한의 3.5배**

남한은 서울·경상·전라도에 47%

북한은 평안·함경도에 52% 시장 분포



전통시장 운영 형태

남한, 자가 및 임차 운영
북한, 장터 운영위원회 운영

남한

자기 점포 54,391개
임차점포 133,969개
(*임대료 월 50~140만원)

북한

모든 상인 '시장사용료' 납부
1일 500~2,500원
(*한화 1~5만원 / 월 30~150만원)

비공식 장마당은 골목, 길거리에서 열려 사용료가 없으나 개인 집에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기도 한다.

단, 비공식 '장마당'은 공식 시장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남북한 유명 전통시장

남한

시장명	취급품목
남대문시장 (서울)	의류·주방용품·귀금속·수입품 도소매시장
광장시장 (서울)	한국 전통 먹거리 및 한복 시장
대구약령시장 (대구)	358년 역사를 지닌 한약재 전문시장
정남진장흥시장 (전남)	50여 곳의 한우 전문 판매 시장
자갈치시장 (부산)	국내 최대 수산물시장
제주동문시장 (제주)	제주 지역 향토음식 시장

북한

시장명	취급품목
수남시장 (함경북도 청진시)	잡화·공업품·수산물·채소 도소매시장 '의류 품목이 40%'
옥전시장 (평안남도 평성시)	의류 및 가공업 부자재시장 '공업품이 29.4%'
혜산시장 (양강도 혜산시)	외국산 잡화시장 중국산 90%일본산 6%한국산 4%
외룡시장 (자강도 강계시)	생필품 종합시장 '식품이 34.8%'
송신시장 (평양시)	10일장 '가축 23.1%' & 상설시장 '공업품 및 잡화 26.9%'
사포시장 (함경남도)	함흥시 최대 규모 종합시장 '공업품·잡화·가전제품 52.7%'

※ 참고자료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2016)〉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공저, KINU통일연구원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2016)〉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美의원들 트럼프에 "文대통령과 사드 완전배치 촉진해법 찾아라"

미국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사드 완전배치 촉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북한군 열흘 만에 잇따라 귀순…군기 해이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23일 밤 강원도 지역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한 북한군은 입대한 지 얼마 안된 10대 후반의 병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기

ChosunMedia 조선일보

北잇단 도발에 文대통령, 현무2 발사 참관하며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23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더보기

ChosunMedia 조선일보

文대통령의 '평창 남북단일팀' 제안에 장웅 "스포츠에 정치 연관시키면 곤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남북관계 좋아질 것" 48% 긍정전망 13.9% 증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9~11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13.9% 상승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北무인기, 6~7개국 제품사용 북한군 정찰총국 소행 추정(종합)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발진한 무인기는 5시간 30여 분 동안 490km 또는 532km 비행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조선일보

트럼프 “시진핑 노력은 효과 없었다”… 中에 北 원유차단 요구할 듯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 19일 사망한 이후 미국에서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보기

중앙일보

핵공장 간 김정은 ‘핵무기 보관’ 첫 언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92호 공장’을 비공개로 현지 지도하면서 “핵무기 보관·관리를 비밀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의 극비 문건을 중앙일보가 21일 입수했다.

+더보기

중앙일보

“조건 충족돼야 대북 대화” 트럼프 코드 맞추려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더보기

중앙일보

북한, 방사포 로켓에 ‘눈’ 달았다

군 당국이 입수한 노동당 군수업무 ‘극비’ 문건에 북한이 최근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에 영상유도장치인 ‘김시경과 프로그램’을 장착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웜비어 ‘코마 송환’ 엿새만에 사망… 가족 “北 학대 때문” (종합)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성명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웜비어가 19일 오후 3시 20분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더보기

중앙일보

핵 폐기 조건 뺀 문 대통령, 북에 ‘믿고 대화 나오라’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핵미사일 도발 중지’를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하자고 사실상 공식 제안했다.

+더보기

MK 매일경제 MBN

文대통령 첫 외교시험대, 사드·북핵·FTA ‘삼각파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배치 문제,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중국내 북한 노동자 9만4천명… 외화수입 연 수천억원”

지난달 미국 하원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재하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9만4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탈북민들의 듬직한 가족

김천경찰서 **김홍주 경사** 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탈북민 신변보호관'** 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찰서 **보안계**에 소속된 **신변보호관**은
탈북민들의 건강부터 **일자리, 문화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주는

남한생활 길라잡이입니다.

올해 **8년차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주 경사는 김천 지역에 사는 **53명**의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2015년 경찰청 워크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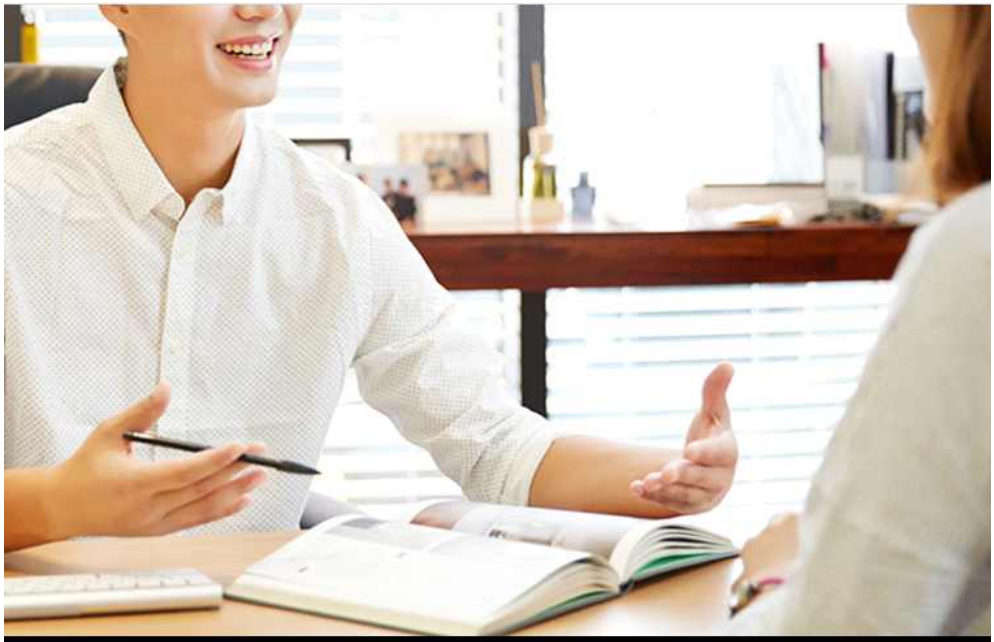
'우수신변보호관'

6인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김홍주 경사**는

9개 사업소와 **MOU**를 맺어 **의료 및 취업,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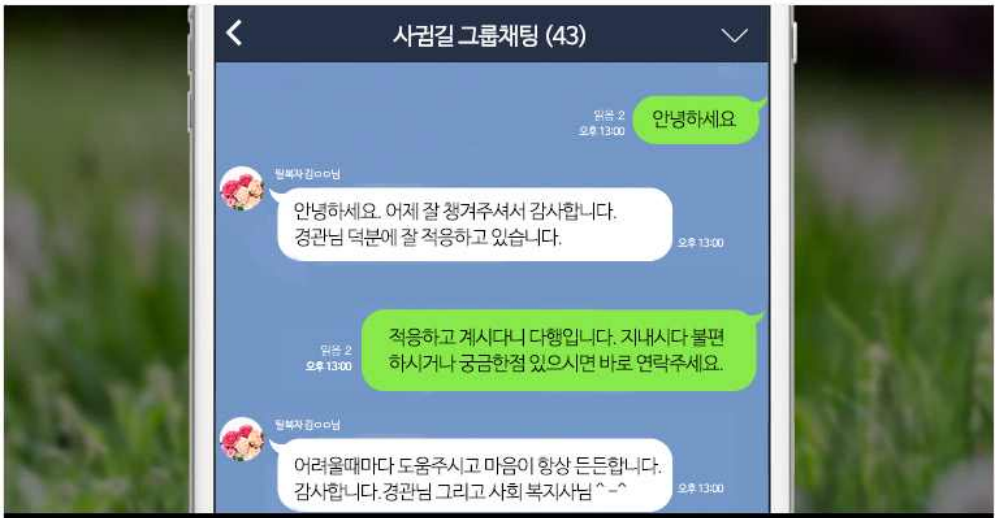
700여 건의 탈북민 지원활동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진료 받도록
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82세에 탈북한** 한 **할머니**의
췌장암 **치료비를 모금**하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요양차 김천에 귀농을 했다가 움막살이를 하게 된
탈북민 부부에게 **2,000만 원**을 **모금**해
'튼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북한말로 **'소통'**을 의미하는 **'사귐길'**은
탈북민들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김 경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밴드)인데요.
이곳에서는 **6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다 보면
통일이 됐을 때 그 분들의 역할이
엄청 클 거라고 봐요.
”

오늘도 탈북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을
김홍주 경사님과 모든 신변보호관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태양광판 설치 北주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다"

강미진(데일리NK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5년부터 평양 가정집에는 태양광판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전기 공급이 열악해 전력난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태양열 전지판을 활용해 밥을 해먹거나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국에서 수입한 50와트 태양광판은 미화 35달러에, 200와트 급은 160달러에 판매되기도 한다. 북한 주민의 태양광판 이용 현황을 알아본다.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의 정체

▲ 개성시 태양열광판

"아버지 어머니 올해 우리 집 목표는 태양열광판을 무조건 마련하는 거죠? 대학공부에 돈 들어가는 것은 많지만 저도 절약해 쓸게요"

평양시 개선구역의 한 가정에서 나온 말이다. 남한 주민들은 새해가 되면 저축과 다이어트, 금연, 금주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바꾸는 등 건강과 미래의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의 새해 계획은 어떤 것일까?

북한 주민들은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만성화된 전력난으로 전기의 덕을 보는 날이 드물다. 오죽하면 '이번 명절엔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까?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여전히 국가 전력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살림집에는 저녁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필자가 북한 내부로부터 받은 2016년 10월과 2017년 5월 평양시 야경을 찍은 사진을 통해 태양광판의 덕을 보는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시 개선구역과 개성시내 모습이 담긴 사진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판이 흔히 눈에 띈다.

함경북도 라선시와 산골군인 명천군에서도 곳곳에서 태양광판을 볼 수 있다. 또 최근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등에 있는 일부 상업망들에서는 야광알림판들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식당을 찾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온 주민들이 야간에도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쌀 50~70kg 시세로 살 수 있는 "태양광판"

평양과 국경지역을 기본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판 덕에 대부분 주민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말이다. 지난해에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에게 부탁해 전기를 충전해왔던 국경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해 가을부터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올 봄에 태양광판을 사서 설치했는데 '밝은 집에 앉아 있으면 마음까지 밝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눈치를 보면서 남의 집에서 충전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태양광판 판매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선문 주변 태양열광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강도 혜산 농민시장에 30W용 태양광판 가격은 북한 돈으로 23만 5,000원, 50W용은 30만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세로 쌀 50~70kg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알뜰히 모은 돈으로 태양광판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양강도의 한 주민은 "1~2년 전만해도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판이 있는 집에 돈이나 음식을 주고 충전을 부탁했었지만 이제는 구입을 꿈꾸고 있다"면서 "자꾸 부탁하는 게 껄끄럽다고 느껴져 '올해는 꼭 태양광판을 사자'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에는 중앙기관이나 1, 2급 기업소, 무역관련 회사에 주로 설치됐던 태양광판이 이젠 일반 가정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태양광판이 설치된 평양 주거지

일상생활에서 태양광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많아져서 그런지 혜산과 위연 장마당의 햇빛판 매대에도 상품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한다. 이 북한 주민은 "주민들은 태양광판으로 집안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 밥가마(밥솥) 등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서 "특히 몰래 남조선(한국) 영화를 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태양광판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은 "국가에서 하는 말을 믿으면 낭패 보지만 돈 벌고 싶다면 돈을,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를 줄 수 있는 장마당을 믿으면 손해는 없다"고 말한다.

가정용 태양광판, 전기제품 수요와 함께 늘어

▲평양

소식통은 "태양광판을 설치한 일부 가정들은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겼다'고 말한다"면서 "위(당국)에서는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선전해도 주민들은 콧방귀를 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함경북도 연사군의 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한 주민은 "6~7개월 키운 돼지를 팔아서 태양광판을 샀는데 밤에 전기 불을 보는 것은 물론이요, 녹음기로 노래도 듣고 어떤 날은 몰래 감춰둔 한국영화도 볼 수 있어서 '세상에 부럼 없어라'라는 말이 절로 나간다"면서 "농촌이라 자주 검열하지 않고 단독으로 집이 지어져 있어서 몰래 영화보기 딱 좋은 조건이지만 태양광판의 덕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오르게 되면서 전기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시에서도 그렇지만 농촌에서도 태양광판 설치여부가 빈부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돈을 아껴서라도 구매하려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뿐이 아니다. 곳곳에 태양광판을 이용한 남새(채소)온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평양 남새연구원과 평성지역의 남새농장들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이른 봄채소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고 평안남도 삼화동 주민은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태양광판 이용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서 무역과 밀수를 통해 대량의 태양광판이 북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멋지게 수선해야죠!”

5개 수선집 운영하는 **‘재봉의 달인’ 정혜영 씨**

마트 지하에 있는 한 수선집 앞에 서면 ‘드르르륵’ 하는 정겨운 재봉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탈북민 정혜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 리폼·수선 센터다.
한국에 오자마자 밤낮 없이 재봉기술만 배웠다는 그녀는 현재 5개 수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다.
탈북민 정혜영 씨의 아름다운 ‘인생 리폼’ 이야기를 들어봤다.

재봉사 8개월, 수선집 주인을 꿈꾸다

“사장님 계세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여자 손님이 찾아왔다. 새로 산 치마의 허리춤이 크다며 줄여달라는 주문이었다. 혜영 씨는 탈의실에서 나온 손님의 옷매무새를 살펴보며 허릿단에 핀 두 개를 꼽았다. 디귿자로 이어진 수선실에는 넉 대의 재봉틀과 색색의 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혜영 씨는 고난의 행군 때 중국으로 시집을 갔다. 하지만 큰 아이가 4살 때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고, 졸지에 가장이 된 혜영 씨는 노쇠한 시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매일 네댓 가지 일을 해야 했다. 낮에는 농사와 양계 일을 하며 틈틈이 생수를 팔았고, 밤에는 부업으로 곰인형을 수선했다. 더없이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그때 부업으로 했던 인형 수선이 지금의 남한 정착에 물꼬를 터줬다. 재봉기술을 배우는 발판이 돼줬기 때문이다.

▲치마 허리춤 사이즈를 재고 있는 정혜영 대표

▲바지 단추 바느질 작업

독한 마음으로 건너온 땅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치열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자립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혜영 씨는 하나원을 퇴소하자마자 바로 학원 수강신청을 했다. 혜영 씨를 지켜본 하나원 직업상담사가 적극 권유해준 의류 리폼학원이었다.

상담사의 판단은 적중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의류 리폼과 재봉수업이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 혜영 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재봉틀이 손에 익을 즈음에는 실습을 요청해 여러 지점을 다니며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나갔다.

"같은 기술자라도 사람마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잘해요. 그런 좋은 기술들을 배우 늘 돌보느라 매일 네댓 가지 일을 해야 했나. 낮에는 공사와 양계 일을 하며 틈틈이 생수를 팔았고, 밤에는 무업으로 삼인형을 수선했나. 너없이 고난한 세월이었지만 그때 부업으로 했던 인형 수선이 지금의 남한 정착에 물꼬를 터줬다. 재봉기술을 배우는 발판이 돼줬기 때문이다.

▲ 치마 허리춤 사이즈를 재고 있는 정혜영 대표

▲ 바지 단추 바느질 작업

독한 마음으로 건너온 땅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치열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자립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혜영 씨는 하나원을 퇴소하자마자 바로 학원 수강신청을 했다. 혜영 씨를 지켜본 하나원 직업상담사가 적극 권유해준 의류 리폼학원이었다.

상담사의 판단은 적중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의류 리폼과 재봉수업이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 혜영 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재봉틀이 손에 익을 즈음에는 실습을 요청해 여러 지점을 다니며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나갔다.

"같은 기술자라도 사람마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잘해요. 그런 좋은 기술들을 배우

▲ 정혜영 대표가 운영하는 신도림점 수선센터

당시 절망에 빠진 혜영 씨를 붙들어준 건 하나원 선생님들과 담당 형사였다. 혜영 씨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아이들 수속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수선집을 그만두고 다 포기하겠다는 혜영 씨를 설득하고 붙들어 준 사람도 하나원 선생님들이었다.

"정유라 선생님, 남진애 선생님, 한옥자 선생님, 이신영 형사님은 제가 힘들고 급할 때마다 연락드리는 분들이에요. 제가 많이 지쳤을 때 '혜영 씨,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힘내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요."

어려운 고비를 하나 둘 넘기고 나니 좋은 일도 생겼다. 수선집이 자리를 잘 잡아 다른 지점을 하나 더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5개 지점을 운영하며 혜영 씨와 같은 탈북민들을 이끌어주고 있다.

"저도 처음엔 아무도 없고 막막해서 많이 울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괴로운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은 사람들 만나서 소통도 하고 우리 탈북민들은 주변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주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새까만 나라에서도 살았는데 여기서 왜 못 해요. 고향사람들하고 다 같이 잘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혜영 씨는 지금 '인생 리폼 중(?)'

혜영 씨는 요즘 방송통신대학교 의상학과 1학년에 다니고 있다. 의상 디자인에 대한 견문을 넓히면 더 좋은 재봉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혜영 씨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엔 여성개발센터에서 취업에 관한 강연도 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직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혜영 씨가 어떻게 노력해 자리를 잡았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당시 강연장에는 혜영 씨 또래부터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그중 몇 분은 혜영 씨 가게를 직접 찾아와 재봉일에 대해 묻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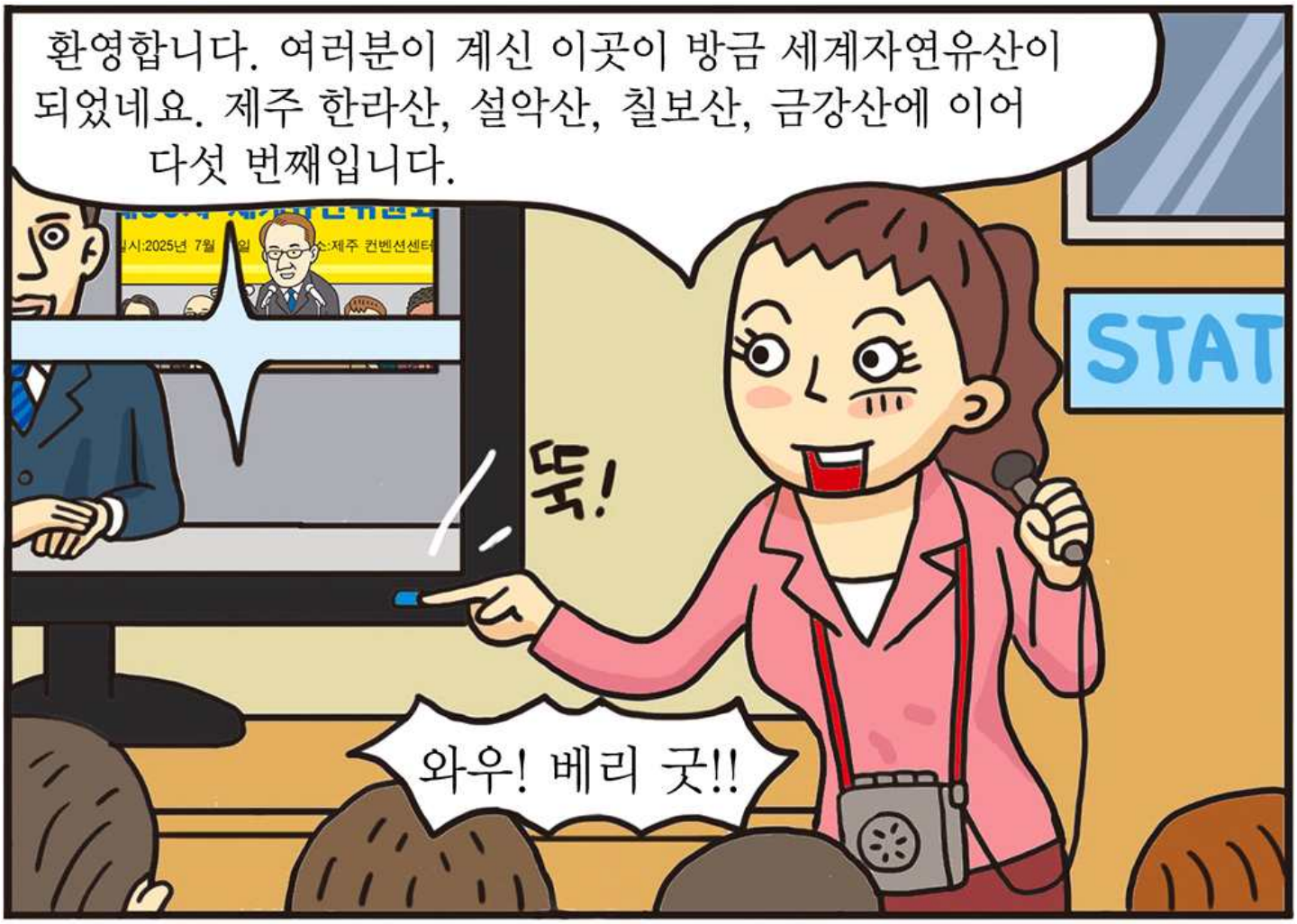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기술자가 없으면 옷을 편안하게 입을 수 없고 아깝게 버려지는 옷도 많잖아요? 저는 제 눈이 보일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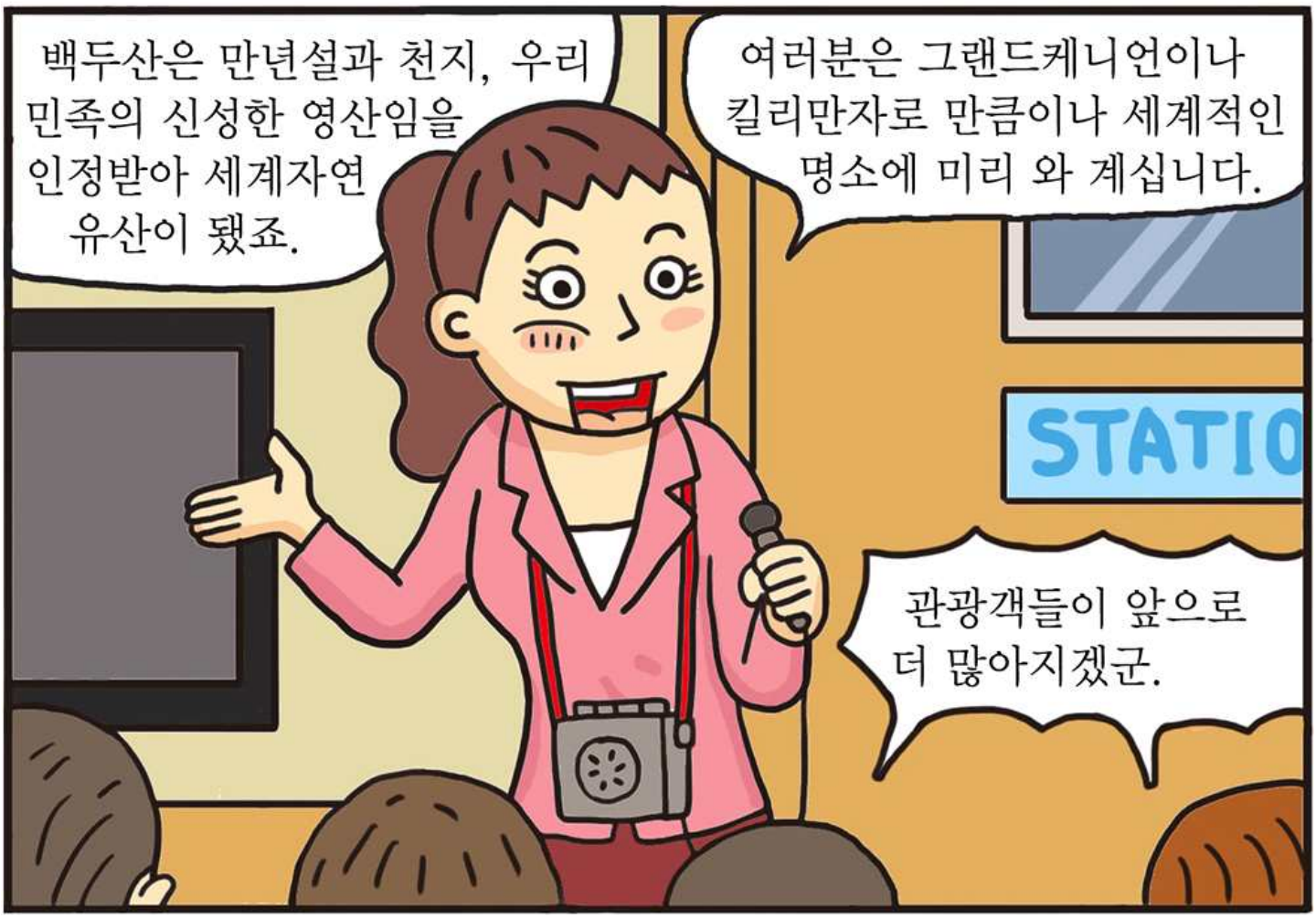
통일이 되면 혜영 씨는 고향에 올라가 직업 훈련소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고향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혜영 씨 같은 탈북민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동료들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리폼' 할 생각이다.

▲수선 작업을 준비하는 정혜영 대표

삼천리 금수강산!
세계유산 강국, 통일한국

글.김혜진/그림.이택종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방금 세계자연유산이 되었네요. 제주 한라산, 설악산, 칠보산, 금강산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일시:2025년 7월
장소:제주 컨벤션센터
STAT
뚝!
와우! 베리 굿!!


백두산은 만년설과 천지,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산임을 인정받아 세계자연 유산이 됐죠.
여러분은 그랜드케니언이나 킬리만자로 만큼이나 세계적인 명소에 미리 와 계십니다.
STATIO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겠군.

통일한국은 면적대비 가장 많은 세계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연유산 외에도 남한의 백제, 신라, 가야, 북한의 고구려, 고려 유적지들이 대거 인정받았거든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더니 과연...
여기가 천지구나!
천지 물은 꼭 마시고 오라던데?
백두산에서 일출 보고 천지 물 한 사발 마시면 영험한 기운으로 피를 맑게 해준다는 이야긴 나도 들었어.
天池

이제 백두산 송이버섯오골계 백숙을 드시러 이동 하겠습니다!!
멋진 경치로 호강을 하니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올 여름 피서는 백두산 만년설과 함께!
금강산은 식후경, 백두산은 식전경인가요? 하하하

청포를 입고 찾아온 여름,
경북 포항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淸泡)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이육사 〈청포도〉 -

한반도의 진짜 맥박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해가 뜨는 가장 동쪽인 포항 호미곶.
이육사는 이곳 동해 바다를 마주보고 서서 바다 너머 거대한 세계를, 나아가 펼쳐질 조국의 미래를 예감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이 입었을 청색 도포는 낡아도 표 나지 않는 옷이라 예로부터 청빈한 선비의 표상이었고,
또 당시 독립운동가가 즐겨 입었던 복장이기도 하다.
그 푸른빛은 어쩌면 정신과 기개, 모든 것을 품어 스스로 깊어가는 색깔일 것이다.
바다가 가장 푸른빛을 띠는 계절인 여름.
청년처럼 힘차게 태동 중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8월의 바다 여행을 시작한다.

어둠을 몰아내고
새 역사를 기원하다, 호미곶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보면 호미(虎尾)곶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나라 동쪽 땅 끝에 있다. 새해 울산의 간절곶과 함께 일출의 명소로 꼽히지만, 동해 여름 바다의 풍경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발길을 이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조형물은 단연 '상생의 손'이다. 한 손은 바다 위에 있고 또 한 손은 육지에 있는데, 아이를 안기 위해 한껏 벌린 어머니의 넓은 품처럼 품이 넓으니 그 어떤 것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이 넉넉하다. 바다와 육지에 서 있는 손은 너와 나, 서로 다른 것들의 화합을 상징한다고 한다. 2000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기념으로 조성됐는데 이 청동 조형물과 바닷물 색의 푸른 조화가 퍽 이채롭다.

상생의 손 왼편에는 육각형 모양의 6층짜리 대형 등대가 서 있는데, 이 등대의 사연도 예사롭지 않다. '호미곶 등대'는 1903년 고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등대로, 등대 내부의 천장에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어둠을 몰아내고 조국을 밝힐 등불로 여겼을까, 고종은 곳곳에 등대를 지어 풍전의 등불 같은 조국을 지키고, 다시 떠오르는 해처럼 역사를 시작하고자 했다. 어쩌면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놓치는 의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화려한 해변의 의미 뒤에 숨은 진짜 무거운 역사 때문이다. 그 절박한 의미를 읽어내고는 문득 걸음이 느려졌다.

호미곶 광장에서 조금 벗어나면 해안을 배경으로 이육사의 시비가 서 있는데, 정돈되지 않고 어수선한 주변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을" 만큼, 그토록 소원하던 그 평화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걸까. 비석 하나에 겨우 몇 글자 새겨놓았을 뿐인 듯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이 쓸쓸해졌다.

▲ 마주보는 '상생의 손'과 호미곶 광장의 전경

▲ 고전적인 느낌이 드는 호미곶 등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淸泡)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이육사 〈청포도〉 –

풍요로움 그 이면의 아픈 역사를 담은 항구, 구룡포

▲풍요로움의 상징, 구룡포항

포항하면 어떤 이는 구룡포를 떠올릴 만큼 이름도 풍경도 유명한 항구가 바로 구룡포항이다. 구룡포구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갯내음만 맡아도 어촌의 분위기가 확연하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은 갯마을인 구룡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일상의 풍경 사이에는 일제 강점기 번화가의 흔적도 보존되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문화역사거리'다. 평화로운 어촌에 어울리지 않게 일본식 목조 건물이 줄지어 있는데, 일반 가옥보다는 그 시절의 병원, 백화상점, 요리점, 여관 등의 상점이 대부분이다. 먼 한때 이곳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노랫소리로 소란스러웠을 것이다.

▲번화했던 옛 풍경을 담고 있는 목조 건축물

본디 구룡포는 풍요의 항구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동해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로서 일본 정부를 통해 어업권을 확보한 일본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도, 풍요로운 어업 자원 때문이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동해에서 잡아들인 물고기로 얻은 수익은, 들판에서 수탈된 곡식과 비견할 만큼 막대한 양이었다. 광복이 되면서 주인을 되찾은 구룡포항은 과메기와 오징어, 전국 최대의 대게 산지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속의 아픈 추억은 옛말이 되었지만, 슬픈 그 풍요의 흔적, 가슴 아픈 역사의 자취를 천천히 걷는다.

'떠오르는 해'와 '동해 바다의 바람'을 벗삼다, 해파랑길

최근 포항의 뜨는 명소인 '해파랑길'은 '해랑 바다랑 말동무 하며 걷는다'는 의미로 지어진 예쁜 우리말 이름이다. 부산의 오륙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진 트래킹 코스로, 동해 바다를 옆에 끼고 끝도 없이 걸어가는 해안길이 백미다.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李顯龍)이 휴가 때 해파랑길을 걷고 페이스북에 사진과 감상을 올린 후 그 정취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리 총리가 걷지는 않았지만, 호미곶에서 구룡포까지 이어진 14코스를 따라 걷는 해안로 역시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호미곶이 호랑이의 꼬리로 비유된다면, 동해안 해안을 타고 걷는 이 길은 호랑이의 등허리인 셈이다. 해파랑길을 걷노라면 망망한 동해 바다를 따라 호랑이의 등을 타고 질주하는 듯 시원하게 막힌 속이 트인다.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드라이브도 역시 좋다. 본디 도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 만들어졌겠지만, 해파랑길의 일부 해안의 도로는 구불구불 이어져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안개가 조금 있는 하늘이었으나 여기저기 눈 닿는 자리마다 빛이 닿았다. 우렁차게 몰아치는 파도의 기세도 좀처럼 거부감이 들지 않고 마치 내 몸의 움직임처럼 익숙하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파도도 마음도 어느새 유순해진다. 홀로 바닷길을 가는 이유는 이런 감동 때문이 아닐까. 주인 없이 온전한 바다나 하늘이 내 앞에서 한동안 여운에 잠긴다.

▲ 동해안 해파랑길

풍부한 먹거리,
없는 게 없는 죽도시장

수산물 풍부한 포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행코스, 포항의 죽도 시장을 혹자는 '대한민국 해물 1번지'라고도 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규모도 커서 여기저기 어항 가득 대게며, 오징어며, 고등어와 방어가 물 만나 반짝반짝 빛을 낸다. 이곳에 왔으니 누구나 꼭 한 번은 먹어본다는 물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그릇 먹기 위해 앉았다. 일단 그릇 안에 담긴 회만 보아도 배가 무를 만큼 포항의 '물회'는 명성 그대로 푸짐하다.

▲ 시장에서 먹은 물회 한 그릇

전통시장을 들르면 멋드러진 우리네 삶을 덤으로 얻어가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여행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기운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고 그 에너지에 8월 더위에 지쳤던 발걸음 또한 가벼워졌다. 온몸으로 뛰놀아도 아름답고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숨 가쁜 우리의 청춘, 이를 예감했던 옛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기억해주고 싶었던 뜻 깊은 어느 여름의 포항이었다.

〈글: 김혜진 / 사진: 김규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즐겨먹는 여름철 보양식, 열무짠지

여름철 복날이 다가오면 대부분 남한 사람들은 삼계탕, 장어구이, 해신탕 등 여름 보양식을 찾아다닌다.
이는 남한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양식을 만들어 먹었다.
북한에서는 '단고기'라 불리는 개고기의 인기가 대단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의 주민들은 값비싼 보양식을 맛보기 쉽지 않다.
때문에 열무와 닭, 그리고 된장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수한 보양식 열무짠지가 사랑받는다고 한다.

요리재료

열무김치 세 보시기, 닭 작은 것 한 마리, 된장 2스푼, 마늘 한 줌, 고추 약간

Step 1

열무김치 세 보시기를 물에
헹궈 양념을 털어낸다.

Step 2

닭은 조림용으로 조각낸 닭을
흐르는 물에 씻어준다.

Step 3

냄비에 열무김치를 담고 닭과 마늘을 보기 좋게 얹는다.
물은 아래 깔린 열무가 잠길 만큼만 부어준다.

Step 4

된장을 2스푼 넣어준다.
물의 양이 적다면 된장의 양을 조절해준다.

Step 5

센 불에 냄비를 얹고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 뒤 30분쯤 끓인다.

Step 6

열무김치를 국물로 간을 맞춰주고
한소끔 끓이면 완성!.

요리연구가_박민지

삼복 음식, **남 삼계탕 북 단고기**

초복·중복·말복을 이르는 말인 삼복은 한해 중 가장 무더운 시기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삼복더위를 피해 서늘한 곳을 찾아가 휴식을 보내면서 시기에 걸맞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남한에서는 삼계탕이 복날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북에서는 단고기국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고기매운탕, 팥죽, 파국 등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냈다.

삼복 음식에 고기 요리가 많은 것은 폭염이 내리쬐는 기간 영양소를 대량으로 섭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영양이 풍부한 고기요리, 그 중에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물기가 있는 음식을 요리해먹었기에 대부분 보양식은 국물이 많다. 여기에 체내 열기를 돋워주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의 부재료를 넉넉하게 넣어 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통일대한민국을 상상하다
여수시협의회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수시협의회(회장 박정일)는 6월 14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청년, 통일대한민국을 상상하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 김진아, 김유리 씨가 패널로 참가했으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민 부회장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 사회적 갈등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통일을 위한 과제' 주제 아래 진행된 토론에서는 통일의 미래상과 통일에 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통일 한반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2017 모범 탈북학생 장학금 수여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황인성 사무처장)는 6월 28일 서울지역회의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한광석)가 주최한 '2017 모범 탈북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황인성 사무처장과 서울지역협의회장, 의료봉사단, 자문위원 등이 함께 했으며, 장학금은 탈북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에게 수여됐다.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황인성 사무처장은 "낯선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모습에서 통일의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장학금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통일 한반도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통일 아카데미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경남 창원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통일아카데미 수료식 (경남 창원시협의회)

▲ 제13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아카데미 수료식 (경기 안산시협의회)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6월 14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8강으로 '통일비전과 국론통합'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제1기 민주평화통일통일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어 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5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어 13주간 교육과정을 마친 5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주부대학 통일시대 시민교실(서울 금천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강원 속초시협의회)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14일 주부대학생과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부대학 통일시대 시민교실' 수료식을 개최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마지막 수업으로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철원· 연천 일대 통일안보 현장을 견학했다.

자문위원 연수

▲ 자문위원연수 및 단합대회(대전 서구협의회)

▲ 자문위원 통일공감 연수(대전 중구협의회)

▲ 자문위원 통일연수(전남 강진군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17일 '제17기 자문위원연수 및 단합대회'를 열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고, 같은 날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제17기 자문위원 통일공감 연수'로 경북 울진 불영사, 성류굴, 민물고기 생태 체험관 등을 견학했다.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안영진)는 7일부터 9일까지 '2017 자문위원 통일연수'를 실시했고,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9일 전남 강진 일원에서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부산 사하구협의회)

포럼 및 강연회

▲ 한라-백두 포럼(제주지역회의)

▼ 통일강연회(부산 동래구협의회)

▼ 통일공감 토크콘서트(전남 함평군협의회)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8일 제주통일미래연구원(이사장 임강자)과 함께 '새 정부의 통일안보환경 진단과 대북 통일정책 그리고 제주도'를 대주제로 '한라-백두 포럼'을 개최했고, **부산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는 9일 '2017년 찾아가는 통일강연회'를 진행했다.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윤영수)는 5일 '2017 군민과 함께하는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어 '변하는 북한과 남북한 문화의 차이'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다.

좌담회 및 간담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충남 계룡시협의회)

▲ 여성지도자와 함께하는 통일좌담회(대구 남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북 정읍시협의회)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 6월 7일),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 6월 14일), **전북 정읍시협의회**(회장 유남영)는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충북 영동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경남 합천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북 임실군협의회)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 6월 7일),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 6월 7일),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인기, 6월 14일),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 6월 9일)는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최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인천 서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남 해남군협의회)

▲ 대학생통일동아리 통일역량강화 간담회 (충남 당진시협의회)

▲ 합동간담회(전북 전주시협의회&제주 제주시협의회)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13일 해남군여성지도자들과 함께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실시했고,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8일 통일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통일동아리 통일역량강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9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와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 국립영천호국원 방문(대구 남구협의회)

▲ 천안함 통일안보현장 견학(충북 괴산군협의회)

▲ 통일안보현장 견학(충북 옥천군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2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했고,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14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천안함 통일안보 현장을 견학했으며,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는 15일부터 1박2일간 파주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강화 평화전망대 등을 둘러봤다.

▼ 제17기 운영위원 안보견학(대구지역회의)

▲ 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견학(경기 군포시협의회)

▲ 지역사회 통일준비 현장견학(인천 서구협의회)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과 안보의 언덕에서 '제17기 운영위원 안보견학'를 개최했고,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백영자)는 8일 판문점,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돌며 '2017년 자문위원 통일안보현장견학'을 실시했으며,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14일 제28사단, 태풍전망대 등으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통일준비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통일문화 확산

▲ 자라섬 통일문화축제 및 전국 어린이 자전거 대회(경기 가평군협의회)

▼ 여성 통일공감한마당(충북 청주시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1일 자라섬에서 주요 인사 및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자전거 연맹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라섬 통일문화축제 및 전국 어린이 자전거 대회'를 열었으며,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14일 청주시 여성 및 탈북민 300여 명과 함께 '2017 청주시 여성 통일공감한마당'을 실시했다.

▲ 평양예술단 초청공연(강원 삼척시협의회)

▲ 통일하모니 통일Song 경연대회(제주 제주시협의회)

▼ 용인시민 도전! 통일골든벨(경기 용인시협의회)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김무호)는 3일 삼척시민 및 관광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고,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3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국민대통합 평화통일기원-2017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하모니 통일Song 경연대회'를 펼쳤으며,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3일 용인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용인시민 도전! 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경북 구미시협의회)

▲ 통일후계세대 인형극(강원 양양군협의회)

▲ 태극기그리기 체험(충북 괴산군협의회)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18일 '제12회 통일염원 길거리 농구대회'를 열어 120개 팀과 함께 했고, **강원 양양군협의회**(회장 김현수)는 12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후계세대 인형극'을 열었으며,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12일 유치원생들과 함께 '태극기그리기 체험'을 실시했다.

▲ 67주년 기념 6.25참전 유공자위문행사(서울 마포구협의회)

▲ 이승복 평화기념사업회 창립대회(강원지역회의)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김성우)는 20일 6.25참전유공자 및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7주년 기념 6.25참전 유공자위문행사'를 개최했고,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20일 기관·단체장 및 창립 준비위원 등과 '이승복 평화기념사업회 창립대회'를 열었다.

▲ 자문위원 및 통일무지개회원 분단현장탐방(부산 기장군협의회)

▲ 제62회 현충일 추념식(경북 군위군협의회)

▲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 운동(경북 의성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영주시 평화통일포럼회원과 함께하는 체험교육(경북 영주시협의회)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자문위원 및 통일무지개회원과 분단현장탐방을 다녀왔고,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6일 군위군 충혼탑에서 보훈 단체장, 유자녀 대표, 가족, 김영만 군위군수 등 주민 500여 명과 함께 '62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으며,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걸수)는 1일부터 이틀간 안계재래시장과 의성재래시장 인근에서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 운동'을 실시했고,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18일 '북한이탈주민, 영주시 평화통일포럼회원과 함께하는 체험교육'을 개최해 서울국립현충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다녀왔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통일골든벨 지역대회(충남지역회의)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충청북도대회(충북지역회의)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병묵)는 1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480여 명의 학생들과 '2017 세종·충남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지역대회'를 개최했으며,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 등이 함께 했다.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9일 637명의 학생들과 함께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충청북도대회'를 개최했으며,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 등이 함께 했다.

▲ 통일골든벨 대구지역 본선대회(대구지역회의)

▼ 통일골든벨 부산지역대회(부산지역회의)

▼ 통일골든벨 전라북도 대회(전북지역회의)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8일 학생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대구지역 본선대회'를 개최했고, 행사에는 서구협의회(협의회장 최종석),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 등이 함께했다.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7일 부산지역 고등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부산지역대회'를 개최했고, 남구협의회(회장 박동천), 금정구협의회(회장 김재두),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 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 동래구협의회(회장 이태희),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 등이 함께 했다.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0일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와 함께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북지역 고등학생 420여 명과 '201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골든벨 전라북도 대회'를 열었다.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경기 양평군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육(경기 여주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교육(경기 하남시협의회)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김수한)는 6월 5일과 7일 강하초등학교에서 '2017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헌)는 23일 창명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진행했으며,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9일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을 열었다.

▼ 통일교육(경기 이천시협의회)

▲ 청소년 1일 통일교실(경기 화성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교실(경북 경산시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1일 신하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했고,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2일 '청소년 1일 통일교실'을 열었으며,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허개열)는 15일 신상중학교에서 '2017년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
(경기 김포시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경기 과천시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충남 예산군협의회)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 6월 12일),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 6월 12일),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 6월 1일)는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실시했다.

▲ 통일교실(경기 가평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북 청송군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20일 상색초등학교에서 '통일교실'을 열었고,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9일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전북 완주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기 수원시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충북 옥천군협의회)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장완철, 6월 12일),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 6월 7일),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 6월 2일)는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실시했다.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경북 청도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광주 북구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전북 장수군협의회)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 6월 21일)와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 6월 7일)는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전북 장수군협의회**(회장 유일권)는 21일 장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다.

청소년 토크 콘서트

▲ 청소년 통일 공감 토크 콘서트(대전 중구협의회)

▲ 평화통일 청소년 시낭송대회 및 통일공감 토크콘서트(충남 당진시협의회)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19일 대전대성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문화를 체험했고,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11일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청소년 시낭송대회 및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청소년 통일캠프

▲ 나라사랑 통일캠프(전남 영광군협의회)

▲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대전 유성구협의회)

▲ 청소년 통일공감 분단체험학습(경남 거창군협의회)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14일부터 1박2일간 영광여자중학교에서 '나라사랑 통일캠프'를 개최했고,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는 8일부터 1박2일간 유성중학교 학생들과 '2017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9일부터 1박2일간 거창중앙고등학교 학생들과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국회, 창덕궁 등을 견학하고 DMZ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통일 사진·UCC 콘테스트' 활동을 펼쳤다.

▲ 청소년 DMZ 평화기행(경북 상주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리더 양성 워크숍(충남 천안시협의회)

▲ 통일꿈나무체육대회(인천 중구협의회)

경북 상주시협의회(회장 권세환)는 14일 함창중학교 학생 및 교사, 자문위원 등과 "분단의 땅! 평화의 땅! 그 길 위에서 만들어가는 통일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 DMZ 평화기행 행사'를 진행했고,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7일 천안북중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통일리더 양성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인천 중구협의회**(회장 이승부)는 2일 '2017 통일꿈나무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봉사활동

▲ 농촌 일손 돕기 행사(충남 공주시협의회)

▲ 한걸음 장애영유아 어린이 건강한 여름나기 보약전달 (대전 중구협의회)

▲ 더불향 봉사단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대구 수성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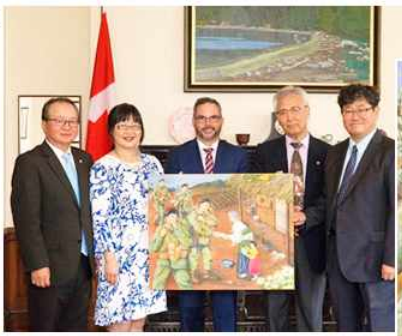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22일 '농촌 일손 돕기 행사'를 실시했고,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14일 저체중 및 허약체질 장애영유아아들에게 보약을 전달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2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더불향봉사단과 함께 안강전투전적비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외활동

◀▼ 통일아카데미(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은 16일 실리콘벨리에 있는 코트라 대강당에서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17기 임기 동안 진행해온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6명의 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17기 우수자문위원 12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국전 추모 캐나다 참전용사 그림 기증(미국 토론토협의회) ▼▶



미국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은 13일 캐나다 오타와 연아 마틴을 상원의원을 방문해 '한국전 추모 캐나다 참전용사' 그림을 기증했고, 캐나다 전쟁박물관에는 최진학 회장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 박물관장 James Whitham에게 기증했다. 토론토협의회는 캐나다 독립 150주년 기념 한국전을 추모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6.25한국전 추모행사 공연 및 한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 통일골든벨(중국 베이징협의회)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정재화)는 10일 천진한국국제학교에서 '2017 청소년 통일골든벨' 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종욱 주중한국대사관 통일관, 조선진 북경한국국제학교장, 북경, 천진한국국제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자문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후의 1인은 북경한국국제학교 11학년 4반 정재욱 학생이 차지했다. 본선 중간에는 천진한국국제학교 오케스트라 공연과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이'와 '역사'로 통일에 한 발 다가서다

충북지역회의 '2017 청소년 통일문화캠프'

"선생님, 이건 교과서에서 봤던 탑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큰 왕관을 매일 썼어요?"
지난 6월 9일 공주 한옥마을에서 '2017 청소년 통일문화캠프'가 열렸다.
금요일 저녁부터 1박2일간 열린 캠프는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진명희)가
남북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통일의식과 역사 체험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국립공주박물관부터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 부여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진 충북지역회의 청소년 통일문화캠프 현장을 다녀왔다.

어우러져 배우다 '통일놀이 한마당'

금요일 오후 충북 예산읍에 있는 한 복지관에는 배낭을 멘 아이들이 가득하다. 공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2017 청소년 통일문화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꼬박 하루 동안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아이들은 이미 캠프장에 가 있는 듯 마음이 들떠보였다.

첫째 날 일정은 숙소 배정, 저녁식사, 통일놀이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공주에 도착한 아이들은 너른 마루 사이로 두 개의 방이 마주보고 있는 숙소에 짐을 풀었는데, 평소 친하던 친구끼리가 아닌 남한 청소년과 탈북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섞여 한방을 쓰게 됐다. 단 하루지만 서로를 알아가도록 배정된 모둠이었다.

▲ 통일놀이 한마당 발표 시간

▲ 통일놀이 한마당 소통 게임

▲ 신문지로 공 만들기 게임

식사 후에는 실내 강당에서 '통일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통일놀이 한마당은 놀이와 스피치를 통해 통일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삼오오 조를 이룬 아이들이 협력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다. 그중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활동은 '신문으로 공 만들기' 게임이었는데, 각 조에 나눠준 신문을 열심히 찢어 뿌리기도 하고, 다시 조각조각을 붙여 큰 공을 만들기도 하며 협동심과 우정을 쌓았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충북지역회의 진명희 여성위원장은 "'2017 청소년 통일문화캠프'는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통일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지(달라지는지),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공산성에서 읊은 '평화통일 대한민국' 4행시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역사 현장 체험이 이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인 '국립공주박물관'은 충청 남·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여러 문화재를 전시해 웅진 백제시대 문화를 재조명한 곳이었다. 특히 박물관 1층에는 묘지석, 관식, 은제팔찌 등이 전시돼 있었는데, 이를 본 아이들은 화려한 백제시대 장신구들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두 번째 현장은 '무령왕릉'이었다. 무령왕릉은 송산리 제6호 벽돌무덤 북쪽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1971년 벽돌무덤 내부에 스며드는 유입수를 막기 위해 굴착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된 무덤이라고 한다. 실제 왕릉 안에는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 무덤'이 있는데, 비좁은 입구를 통과한 아이들은 매우 웅장하고 정교한 무덤 내부를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탄성을 내뱉었다.

▲ 백제시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해설사

▲ 통일4행시 우수작 시상식

세 번째 현장은 '공산성'이었다. 공산성은 해발 110m인 공산 정상부터 서쪽 봉우리까지 에워싸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백제시대 때 축성돼 '웅진성'으로 불리다 고려시대 이후 지금의 '공산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공산성에서는 '통일놀이 한마당' 때 제출한 '통일 4행시 우수작 시상식'을 가졌다. 통일 4행시 제목은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이었는데 총 14명의 학생들과 2명의 교사가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평화상, 화합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6학년 잔디가 차지했다.

"
평 화통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화 합과 협력 그리고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통 일을 꿈꾸는 한반도의 남북 민족 통일은
일 과 일이 더해져 이가 되는 공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

1박2일, 친구들과 함께한 통일문화캠프를 마치며

네 번째 행선지는 대전 금강가에 있는 '석장리 선사유적지'였다. 석장리 선사유적지는 구석기시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둔 곳인데 주먹도끼, 막집, 식물채집, 사냥 등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마지막 견학 장소인 '국립부여박물관'은 약 1,000점의 백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선이 부드럽고 섬세한 유물들이 많았는데, 가장 큰 토기 앞에 선 준표가 "여기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다"며 신기해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아이들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서 다 같이 기념촬영을 했다. 1박2일 동안 같은 조가 됐던 아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각자 버스에 올라탔다. 줄곧 어린 동생들을 챙기던 6학년 은비는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며 같이 역사도 배우고, 통일도 생각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석장리 선사유적지 박물관 관람 중인 아이들

남한 청소년과 탈북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역사체험과 통일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상호의존력 높은 경제교류로 남북관계 개선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지역사회 과제’ 주제로 제31차 부산평화통일포럼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지난 6월 23일 부산 코도모호텔에서 ‘제31차 부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려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시장과 문화를 형성하고,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민주평통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침을 마련,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남북교류 활성화 예상

‘제31차 부산평화통일포럼’은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홍순헌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영숙 부산 부의장을 비롯해 김종한 부산광역시 연구위원장, 임모섭 부산지역 구군 협의회장 등 50여 명의 부산 지역 협의회장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개회식 △주제발표 △의견개진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숙 부산 부의장은 “부산지역회의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대북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희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근원 ▲북한 체제의 안정성 평가 ▲새 정부 대북정책 ▲지역사회 과제 등 4가지 관점으로 분석했다.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지역사회의 역할’ 발제

진 교수는 52년 냉전기 이후 북한이 미국, 일본과 지속적인 대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 갈등의 기본요인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및 당사자간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체제의 안정성 평가에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정치 상황이나 경제 성장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대북정책에서는 지자체를 주체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함께 개성공단 중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에 관한 남북간 합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며, 인도적 지원 보다는 투자개발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체를 찾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산하고, 중앙과 지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로컬거버넌스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도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및 실효성 있는 접근 필요

의견개진 및 토론에서는 이상민 상임위원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 추진하는 게 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하되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진희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핵을 포기한 나라들의 사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접근 방법에 실효성을 찾아 도움을 주면서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 질문에 답변하는 진희관 교수와 사회를 맡은 홍순원 교수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강조한 '대화를 통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과, 정권에 따른 정책변화의 한계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홍순원 교수는 "십여 년간 포럼을 준비하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름대로 민주평통만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협의회 여한석 간사는 "김정남 사건과 웜비어의 죽음을 보면 북한 인권문제도 꽤 심각하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자, 진희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해져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 6월 7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 인천지역회의(부의장 허회숙, 6월 1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발제), 대전지역회의(강영자 부의장, 6월 12일, 신기현 전북대 교수 발제),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 6월 14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발제),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장영인, 6월 9일, 국민 통일방송 정현무 강사 발제),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6월 20일, 고경민 제주대학교 한술연구 교수 발제)도 각각 '2017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행시 짓기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7월, 행복한 통일 복날 만들기!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7월,
행복한 통일 복날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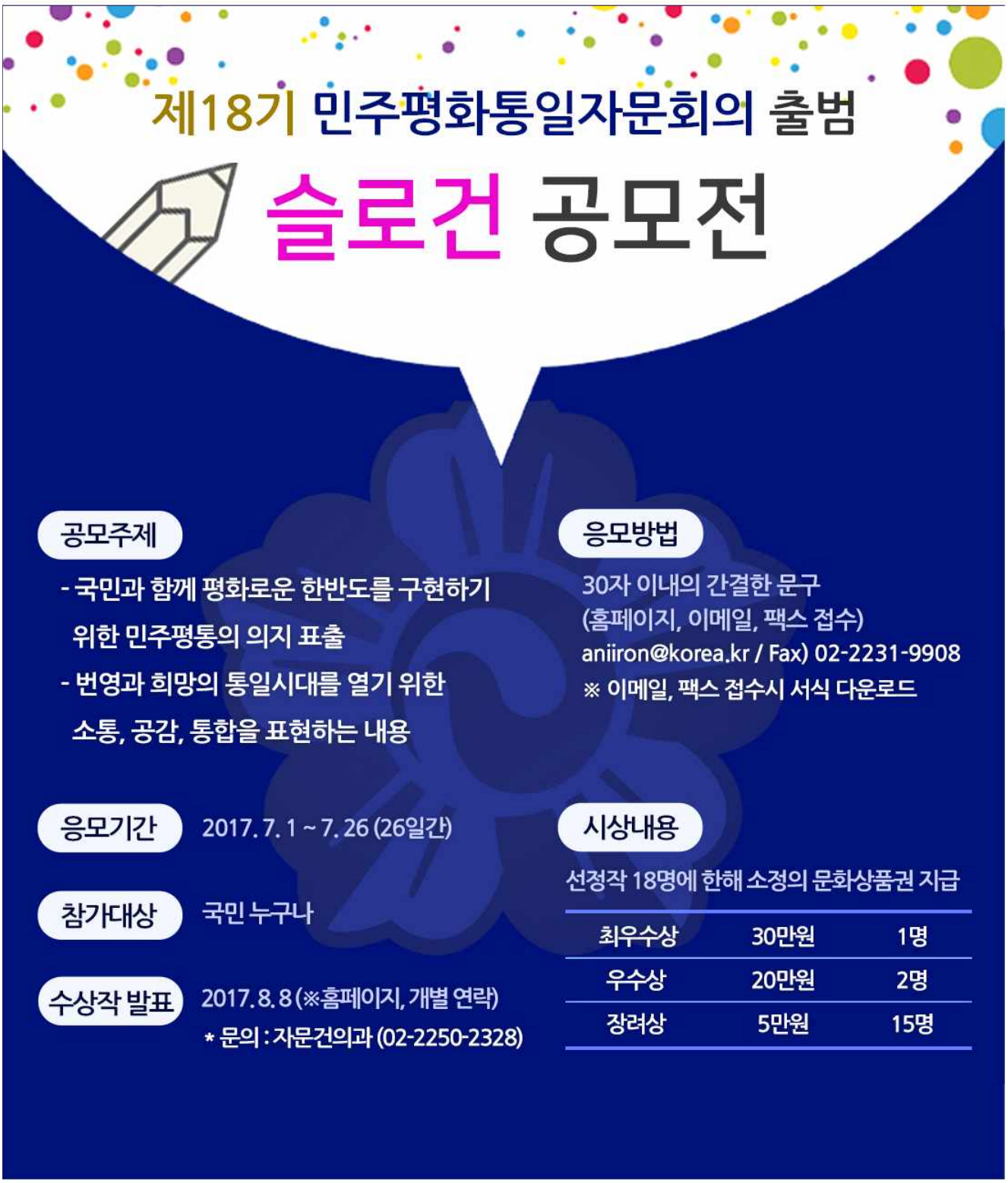
우리 가족이 보낸 **'통일 복날'**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에 등장한 가족들의 모습이 한 가지 이상 통일되어 있으면 OK!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주신 다섯 가족을 추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똑같은 음식 먹으며 찰칵

똑같은 표정 짓고 찰칵

같은 색깔 옷 입고 찰칵

참여방법 우리 가족이 보낸 '통일 복날' 사진 응모하기
(한 가지 이상 통일돼 있는 모습으로 찰칵!)
접수기간 2017년 7월 15일 ~ 8월 5일까지
상 품 패밀리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1만 원 상당)

응모하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슬러건 공모전